

한화 · SK, 청정생산기술 가능성 모색

산자부,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400억원 투입 ... 개도국 기술이전도 준비

정부가 국내기업들의 청정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정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집중 전개한다.

산업자원부는 2004년 청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정부출연금 400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.

오염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청정생산 체제의 도입이 기업활동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자동차, 정밀화학, 염색 분야 등의 16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이미 약 23억원의 지원을 확정했다.

특히, 2003년에 이어 지속적인 지원이 확정된 ▷자동차부품 표면처리 시 6가크롬(EU의 규제대상물질)을 대체하는 기술 ▷염색 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저감시키는 디지털 날염용 잉크 개발 등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인 만큼 국내기업의 환경경쟁력을 한 차원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산자부는 2001년부터 UNIDO(유엔산업개발기구)와 추진중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4월6일부터 9일까지 인디아, 멕시코, 케냐 등 13개 개발도상국의 청정생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 우수 청정생산기술 사례를 소개하고 청정기술의 해외이전을 모색하고 있다.

각국의 국가청정센터(NCPC) 관계자 및 기업의 청정생산 담당자들은 4일간의 방문일정 동안 섬유, 제지, 석유화학, 전자, 자동차 등 관심 분야별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을 방문해 환경경영 현황 및 청정기술 사례를 접하게 된다.

한화석유화학, SK 등 방문대상기업들은 환경경영전략, 오염물질 저감기술 및 에너지 절감기술, 그리고 생산성 향상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기업 홍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으로의 청정기술 이전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07>